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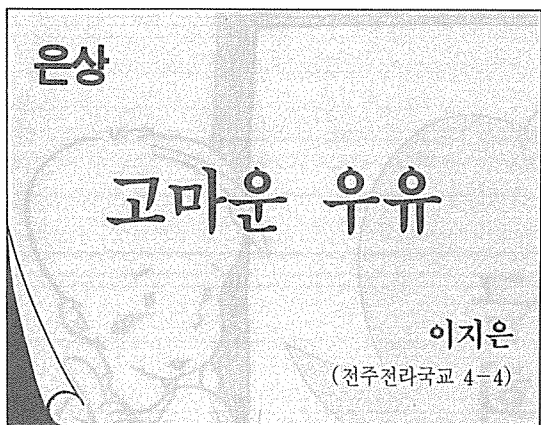
제9회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
입상작



한국유가공협회에서는 우유소비촉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글솜씨 향상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매년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홉번째인 93년도에는 전국에서 총 2천2백82편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최우수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20편, 장려 50편 등 총 78편을 엄선하여 상장과 장학금(장려상은 부상)을 수여했다.

본지는 동상이상 28편을 4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은상 2편, 동상 3편을 실는다.



“응애애—”

“방글아, 애기 분유 좀 타 주거라”

나는 재빨리 소독해 둔 우유병에 분유를 타서 아기 옆으로 다가가 “천사야, 여기 젖”하며 뿌연 우유가 든 젖병 꼭지를 입가에 대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조그마하고 불그레한 입술로 덤석 젖꼭지를 문다. 그리고는 꿀꺽꿀꺽 맛있다는 듯 빨아 들인다.

배가 불쑥 올라온 아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예쁘고 평온하게 다시 쉼쉼 잠을 자곤 했다.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나와 함께 나들이도 하고 온갖 재롱을 다 피우고 있는 튼튼하고 귀여운 내 여동생이다.

이름: ‘천사’

나이: ‘두살’

내 동생은 엄마젖을 한 방울도 먹어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관절염으로 아프셨던 엄마가 작년 봄에 내 동생을 낳으셨다.

그런데 왜 그러신지 엄마는 동생을 낳고 부터 온 몸의 뼈가 더욱 아프다고 하시며 우리가 옆에 가서 살결만 스쳐도 신음을 하시며 조금만 움직이면서도 몹시 괴로워 하신다.

그래서 내 동생이 걸음마를 할때까지는 아빠, 오빠, 내가 정성껏 타준 분유를 먹고 컸다.

지금은 내가 학교에서 가지고 온 우유를 먹고도 모자랄 정도로 우유를 아주 좋아 한다.

한참 재롱을 피우며 정신 없이 놀다가도 “맘마마”, 숟가락으로 서투르게 밥을 먹다가도 “맘마마”라고 하며 포동포동한 손가락으로 냉장고를 가리키며 다가가 우유를 꺼내 들고 온다.

그러면 엄마는 “천사는 밥먹고도 우유를 먹어야 배가 부르지”하시며 우유 한 방울도 아까우신 듯 흘리지 않도록 먹을 수 있게 거들어 주신다.

내 동생이 말한 맘마는 우유인 것이다.

천사가 우유를 잘 먹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엄마도 아픈데, 영양분이 엄마 젖과 비슷하다는 분유가 없었고, 내동생이 분유를 싫어 하고 엄마 젖만 달라고 울었다면, 우리들은 심청이 아버지처럼 이웃 집으로 달려 가서 동냥 젖을 얻어다 먹어야 하고 내 동생은 배가 고프다고 매일 울며 소말리아 애기들처럼 뼈 빠지게 말랐을 것이다.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내 동생을 튼튼하고 총명하게 크게 한 것은 우리들의 보살핌도 있었지만, 영양가가 많고 고소한 우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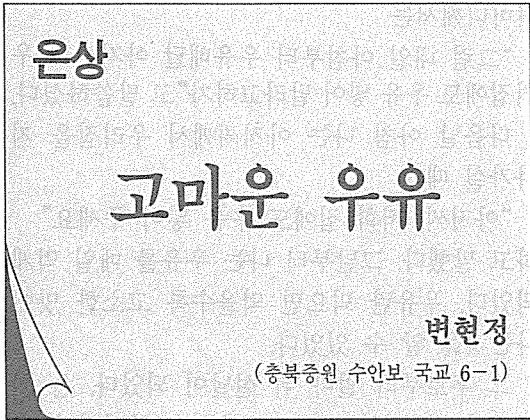
내 동생의 울음을 뚝 그치게 해 주고 아픈적이 없고 쑥쑥 크게 해준 고마운 우유, 내 동생을 키우면서 그 속에는 우리들을 아주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우유를 더욱 좋아 하게 됐다.

“천사야, 냉장고 속에 있는 맘마 잘 꺼내서 먹고,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잘 놀고 있어. 언니가 학교에 가서 맘마 주면 언니는 하나만 먹고 다 갖다 줄게. 알았지?”

무턱대고 응, 응, 안녕 안녕, 하는 내 동생의 힘찬 인사를 들으며 즐겁게 학교로 간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앞으로는 맘مام마 많이 많이 먹고, 아프지도 말고 똥똥이처럼 되어도 좋으니까 튼튼하게 크거라’하고 마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공부도 하고 동생을 건강하게 해 주는 고마운 맘마를 생각한다.



나는 지금 수안보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예전엔 미륵리에 있는 수안보 국민학교 분교에 다녔었다.

4학년 때의 일이다.

학생 수는 4,5학년 밖에 없어서 7명이었고, 담임 선생님은 최백현 선생님 한분이셨다.

선생님께선 다리가 몹시 불편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과 수업하는 일도 힘들어 하셨다.

어느 한 겨울날이었다.

선생님께선 갑자기 이런말을 우리에게 하셨다.

“애들아, 우리도 우유 먹을까?”

우리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선 그 다음날 부터 직접 우유를 타 주셨다.

컵은 유리 컵이었고, 우유를 다 먹고는 꼭 컵을 씻어서 놔야 했다.

우유는 아주 맛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뿐이었다. 우유를 먹는 양보다 버리는 양이 더 많았다.

선생님께서는 어느날 우유를 타시며,

“여기에다가 빵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 보며,

“맞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을 싫어 했다.

그러나 선생님께선 우리들을 무척 좋아하셨다.

우리는 선생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편지도 주고 받고 공책에 낙서도 하고…

그때의 그 따근 따끈한 우유를 다시 먹고 싶다.

다시 먹는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먹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 정성이 가득찬 우유를 타줄 사람은 없다.

그 우유는 나를 ‘막내’라고 부르시던 선생님 밖에 탈수 없는, 아주 소중한고, 고마운 우유이다.

선생님과 그 고마운 우유를 보고 싶다.

하지만 선생님은 멀고먼 하늘로 떠나셨다. 고마운 우유와 함께…

나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빵과 우유를 함께 먹고 싶었다.

선생님과 함께 떠난우유.

다시 되찾고 싶다.

어머니께도 많은 말씀을 드렸다.

“왜 분교는 폐쇄되어야 해요? 나는 분교가 좋아요”

라고…

하지만 어머니께선 들은척 만척 하셨다.

어머니가 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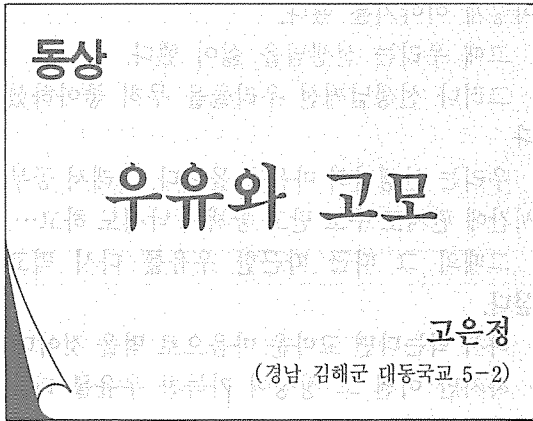
하지만 할수 없는 일이었다.

선생님과 우유는 떠났고 이젠 나의 조그만 학교도 없어졌다.

학교를 폐쇄시키게한 사람이 미웠다.

정말 미웠다.

나는 지금 소중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보고 싶다.



어느날 이었다. 우유 배달 아저씨께서 골목을 내려 가시다가 뒤에 실고 가던 우유를 3개나 떨어 뜨렸다. 나는 우리집 앞에 떨어진 우유를 주워

“아저씨, 우유통이 떨어졌어요!”하고 큰 소리로 불러 보았지만 아저씨께서는 못 들으셨는지 그냥 가셨다. 나는 우유를 집으로 가져와서

“내일 아침 아저씨께서 지나가시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우유를 들고 골목길에 서서 아저씨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며 아저씨께서 우리집을 지나가셨다. 나는 아저씨께

“아저씨, 어제 저희 집앞에서 우유를 3개나 떨어 뜨리셨어요” 하고 우유를 드리니 아저씨께서는

“그랬냐? 고맙기도 해라. 아저씨는 괜찮으니 그 우유는 네가 먹도록 하렴” 하시며 내게 우유를 도로 주셨다.

나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우유를 마셨다. 참 맛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우리도 우유 받아 먹어요” 하고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는

“그래. 우유 먹을 수 있겠냐?” 하고 물어 보셨다. 그래서 나는

“예. 이제 우유가 맛있어요” 하고 대답했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우유배달 아저씨께 우리집에도 우유 넣어 달라고하자”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저씨께서 우리집을 지나가실 때

“아저씨, 저희 집에도 우유 넣어 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날부터 나는 우유를 매일 먹게 되었다. 우유란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는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부터 얼마 뒤 설날이 되었다. 온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고모와 고모부께서만 보이지 않았다.

“또 고모를 못 보는 구나!”

고모와 고모부께서는 병원에서 사신다. 왜냐하면 고모는 당뇨병을 앓고 계신데 몇달전 부터 더 악화되셨기 때문이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 고모가 아파서 병원 침실에 누워 계시니...

나는 고모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오실지 생각해보았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한가지 좋은 생각이 났다.

“아하! 고모께 매일 우유를 드시게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아버지, 매일 학교갔다 오는길에 고모께 들러 우유를 갖다 드릴래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우유를 드리니 고모께서는 “웬 우유냐?”

하고 물어 보셨다. 나는

“고모, 제가 이 우유를 매일 갖다 드릴테니 잊어 버리지 말고 꼭 드세요”

하고 말했다. 고모께서는

“원 기특하기도 해라. 고모는 벌써 다 나온 것 같구나!” 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좋았다. 벌써부터 고모께서 나아서 건강해지시는 기분 이었다.

‘고모, 매일 우유 드시고 어서 건강 해지세요!’

동상

우유와 건강

김용균

(서울 이문 국교 6-4)

“우유왔다”

우리반 우유당번인 성호와 경호가 우유 팩 이담긴 우유상자 2개를 끄끄거리며 들고 왔다. 오늘은 추석에 못먹었던 우유를 먹었다. 난 12개를 집어들고서 우리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난 내자리에 앉아서 우유 1개를 주욱 마셨다. 나머지 1개를 책상 구석에 놓아두고 공부를 했다. 1교시가 끝난뒤 우유를 먹으려고 팩을 뜯는 순간 다른 아이들의 책상을 보았다. 1개 남은 아이 2개 남은 아이 등 아이들의 책상엔 우유가 1개 2개가 남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책상에 있는 우유를 보니 저번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우유는 신선할때 먹는 것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균이 더 늘어 나기 때문에 우유당번이 가져오면 그 즉시 먹자 알았지”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우유를 뜯어 먹었다. 1교시 전에 먹었던 우유 보다 맛이 좀 더 신선하지 못한것 같았다. 난 내일은 두개가 있어 배부르게 먹더라고 신선할 때 먹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난 우유를 1학년 때부터 6학년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먹었다. 어머니께서는 우유를 잘 먹어서 나의 키가 이렇게 크고 나의 몸도 이렇게 육중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셨다. 내 생각에도 내 몸이 이렇게 튼튼한 것이 우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우유를 좋아하고 더 많이 먹을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우유를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것을 알고 년별 키 예상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나도 그렇게

어머니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무척 좋다. 어머니께서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나도 어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한다. 어머니의 관심중 하나가 우유다. 중학교에 가면 학급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네 우유를 신청할까 하시는 생각도 하신다고 나한테 말씀 하셨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난 중학교에 가도 키가 쑥쑥 자라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키라도 반에서 일등을 하고 싶다. 작년에 우유 먹기 대회가 있었을 때 나도 나가보았지만 우승을 못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일등을 해보고 싶다. 우리 주위는 가게나 슈퍼가 눈에 띄이게 많다. 그 가게나 슈퍼에서는 우유를 판다. 우유에는 유통기한 이라는 표시가 있다. 그 표시는 날짜로 써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우유는 상한 우유니 먹으면 안된다. 만약에 상한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유통기한을 지키는 것은 가게주인과 우리들 소비자가 조심을 하면 된다. 가게 주인은 유통기한이 지난것은 소비자가 못사게 해야 하고, 소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지 안지난 건지 잘 보고 사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나는 앞으로 우유를 살때 유통기한을 잘 보고 살것이며, 좋은 우유를 많이 먹을 것이다.

동상

「깡통속의 흰가루」

이무선

(서울 구정 국교 3-3)

‘따르릉’

인천에 계신 이모가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식구는 병원으로 갔다. 4.1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의사 선생님은 청진기를 대고
“이 녀석 유치원 가도 되겠네”
하시며 진찰을 하신다.

동생이 생겨서 나도 기분이 무척 좋았다. 가느다란 손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완두콩알같은 발가락도 만져보았다. 그리고 어른들이 안 보실때는 뽀뽀도 했다. 정말 헤어지기 싫었지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얀 피부에 부드러운 감촉 두눈을 다 못 뜨고 한쪽 눈만 떴었는데…’

아마 이 형님을 제일 먼저 알아 봤을꺼야’
아기가 보고 싶어 엄마를 졸랐지만 학교 다녀와서 학원을 가야 하고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한달쯤 지나서야 아기를 보러 갈 수 있었다. 보름달 같이 커다란 얼굴에 열심히 젖병을 빨고 있는 아기는 완전히 우렁아였다.

“이모 몇 키로야?”

“5.2Kg이야”

“와! 한달 사이에 1.1Kg이 늘었네

“백일쯤 되면 출생시 몸무게의 3배쯤 늘지”
엄마도 옆에서 거드셨다.

두달 더 있으면 10Kg쯤 되고, 또 백일이 지나면 30Kg이 되겠네…

그러면 나하고 몸무게가 같을테니 형님노릇도 못하는 것 아니야!

아기가 먹는 것 이라곤 깡통 속에 있는 분유밖에 없었다. 가루우유에 물탄 것을 먹고 쑹쑹크는 아기가 신기하기만 했다. 내가 이래봐도 열살인데 형님자리를 빼앗길 순 없지!

나는 아기의 방에 있는 분유통을 들고 아무도 없는 빈방으로 들어갔다.

플라스틱 뚜껑을 따니까, 흰 스푼이 나왔다. 젓 냄새가 나는 하얀가루를 뽀드득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안에 가득 털어 넣었다.

샤르르 녹아 내리는 달콤한 맛!

한입 두입 정신없이 퍼 먹다보니 노란 바닥이 반짝 드러나기 시작했다.

‘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기있던 분유통 어디 갔지?”

아무도 못 봤어?”

나는 감감한 방에서 불도 못 켜고 나가지도 못 했다.

“무선아! 밥 먹어라”

애 어디 갔어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방문을 걸어 잠가 내가 있는 방이 탄로가 나고 말았다.

“무선이, 이 방에 있니? 문 열지 못해 너 무슨 잘못 했구나”

불빛으로 나온 나의 모습은 꿀밤을 맞기에 적당했다.

“우유가루를 뒤집어 썼구나.

우리집에 애기가 또 하나 있었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마시지 않고 분유는 애기들이 먹는거잖아”

그래 맛있든?”

“네, 사실은 아기가 나 보다 빨리 클까 봐…”

내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꿀밤이 날아왔다.

오늘은 머리에 혹이 두개나 생기는 날이었다.

아기야! 정말 미안하다. 이 형님이 참 어리석지? 내일 부터는 착한일 많이 해서 부지런히 저축해 우리 동생 좋아하는 분유 많이 많이 사주어야지.

아기가 분유를 먹고 쑹쑹 자라듯이 나도 우유를 많이 마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형님이 되리라 다짐했다.